

‘문화적 자본’ 이론을 활용한 지역문화향유의 함의에 관한 연구*

서 순 복**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raw local cultural strategy and task with the survey of the enjoyment of local culture together from the point of view of integrated approach related to the democratization of culture and cultural democracy, by classifying cultural capital concept into the objectified state cultural capital, institutionalized state cultural capital, embodied state cultural capital, trying to make operational definition, researching the real state of cultural enjoyment and connecting both of them. It is necessary for the possession percentage of objectified state cultural capital to be increased for enlarging the cultural enjoyment ability of local residents, and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various efforts in the level of software and humanware for raising low rates of using cultural infrastructure. In addition, for getting out of the phenomenon of making fixed ideas including the realization of residents' right of culture and the exclusion of participation in cultural enjoyment, it is also necessary to deliberate cultural policy methods for democratization of culture. In the aspects of embodied state cultural capital, it is essential to move prior ranking and emphasis of cultural policy direction from the advanced culture to the living culture of public culture. In addition to evaluate policy-effectiveness for democratization of culture, it is also essential for local residents to enjoy their daily lives that life become art and art becomes life by deriving policy direction enlarging civilian's cultural capability.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ethod of utilizing culture and art for actively developing local culture enjoyment programs executing arts therapy program through culture and art at local community and strengthening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between families.

[Key Words: Cultural Capital, enjoyment of Culture, democratization of culture, cultural democracy, local cultural policy]

* 본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KRF-2007-327-B00765), 2009년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때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토론자와 익명의 심사자들의 유익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soonbs78@hanmail.net)

I.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우리가 사는 현 시대는 정보사회를 넘어 문화와 감성이 중요시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 우리 사회 역시 문화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는 이미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삶의 질과 문화적 향유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일찍이 김구 선생께서도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김구,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국가도 문화국가를 지향하면서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이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고, 국민들은 문화권을 갖는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는 더 의미를 갖는다. 지역문화의 시대는 문화의 수도권 일극집중 현상에 대한 반성이나 반명제로서 받아들여진다.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문화’가 지역활성화의 핵심어가 되는 방향으로 되어가고 있다. 문화에 대한 지역 차원의 담론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 지역의 문화창조력 증진, 지역의 이미지 형성, 지역의 경쟁력 제고 측면(문태현, 1996: 771-772) 이외에도, 지역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을 위해 문화수요 충족과 문화향유가 중요성을 더 한다.

그런데 계급간 문화적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포스트모던 이론의 주장과 달리, 부르디외는 ‘문화적 자본’에 관한 일련의 저술을 통해 계급간 문화적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였다(Bourdieu, 1984; 1990; 1991; 조돈문, 2005: 2-3 재인용). 자본은 경제적 차원의 자본(economic capital)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으로 나뉘 볼 수 있다(Bourdieu, 1986: 65). 행정학계에서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는 풍성하지만, 문화적 자본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자본개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문화향유 실태를 조사하여 양자를 연계함으로써,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와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¹⁾와 관련된 사회학과 문화정책학의 통합적 접근시각에서 정책적 과제와 대안을 도출하고자

1) 고급문화는 구별과 배제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문화는 일상적인 것이다. 사람들이 일상생활했던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문화의 민주화는 문화와 문화적 감상/참여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술을 감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자신의 예술

하는 것이다. 오늘날 통섭 내지 융합의 시대에 학문간 경계를 넘어 사회학과 정책학 특히 문화 정책학의 통합적 연구를 시도하는 점에서, 행정학계에서는 생소한 문화적 자본 개념을 차용하여 문화정책연구를 하고자 한다. 지방화 시대 상황에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 정책과제를 도출을 위한 시론적 내지 탐색적 연구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자본’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문화향유 경험이 소비취향이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특히 지역에 있어서 문화향수 실태를 조사해 봄으로써, 지역문화정책적 쟁점, 즉 문화적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에 대해서 논의를 심화함으로써 지역 문화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연구자의 연고지인 광주광역시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전남지방의 시군단위 중소도시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조사대상의 지역편중으로 인한 일반화의 한계를 피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에서 문화향유에 관한 전국 통계자료와 서울지역 조사자료와 대비함으로써 균형을 찾으려고 하였다.

II. 문화적 자본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문화적 자본에 관한 이론적 정초

원래 문화적 자본은 사회학에서 계급불평등의 새로운 차원으로서 연구되던 주제이다. 근래 들어 신뢰와 사회적 연대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이 중요시되면서, 문화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계급간의 불평등은 특정계급에게 경제적 자본의 소유가 편중되는 것에서 유발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근래에는 경제적 자본 이외에 사회계급간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의 불균등한 배분도 계급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에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다(Dimaggio, 1982; Bourdieu, 1984; Erickson, 1996; Achaffenburg & Maas, 1997; Holt, 1998; De Graaf, 2000).

문화적 자본이론은 사회학계에서는 다소 알려져 있지만, 행정학계에는 매우 생소한 개념

을 만들어보도록 격려된다. 문화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서, 상향적이고 자발적 방식이다. 모든 사람은 창조적 소양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문화의 민주화가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를 지향한다면, 문화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다. 자본하면 일반적으로 경제적 자본을 의미하지만, 경제적 자본 이외에도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을 생각할 수 있다. 원래 문화적 자본은 부르디외(Bourdieu)가 용어를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문화가 지위와 권력의 원천을 대표한다는 개념은 고전적 사회이론, 특히 Max Weber나 Emile Durkheim의 저술 속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²⁾ 문화적 자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일의적 정의가 어렵고 연구자마다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다. 예컨대 문화자본을 문화유산이나 대중문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³⁾. 그러나 문화적 자본에 관한 기본적 이해는 부르디외의 개념에서 출발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차용하기로 한다. 부르디외는 현대사회에서 사회계층이 어떻게 유지되고 재생산되는지, 피지배계층이 어떻게 자신들의 지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설명을 문화에 관한 분석을 통해 제기하였다. 부르디외는 문화적 취향이 계급의 지표이며(Bourdieu, 1995: 21), 계급간 문화적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조돈문, 2005: 4), 개인들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⁴⁾. 그는 예술적 능력이나 고급 예술취향은 문화자본을 풍부히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송영국, 2003: 124), 예술적 능력 내지 미적 취향은 문화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 안에서 시작하여 긴 가르침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며, 인간 행동은 엄격한 합리성과 재산을 근거로 행해지기 보다는 일정한 기억과 습관 그리고 사회적 전통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홍성만, 2004 재인용). 음악과 미술 같은 고급문화예술에 대한 취향은 대체로 교육수준과 사회계층에 상응한다고 보고, 문화적 취향을 정당한 취향(legitimate taste), 중류취향, 대중취향으로 구분하였다(Bourdieu, 1995, 양중희, 2005).⁵⁾

- 2) Weber는 이른바 “status group”에 관해 사회적 지위를 공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의하여 연결된 사람들, 즉 공통된 정체성, 공통된 가치들, 유사한 심미적 취향들, 의복이나 언어의 형식들, 오락 및 집단적 의식들에 의하여 연결된 사람들을 status group 형성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웨버는 사회적 지위집단을 희소자원과 시장적 기회독점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외부인들과 자기들을 구별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보았다. 웨버의 고찰은 부르디외가 초기 문화적 자본의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cultural arbitrary” 개념 속에 나타난다. 부르디외는 또한 Durkheim으로부터 prestigious culture가 성스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물려받았다. 즉 문화는 일상적 생활세계와 분리되어 있으며, 문화적 상징들은 강력한 방법으로 집단의 권력을 구현하며, 집단이 가장 존중하는 문화적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곧 권력이 원천이 된다고 보았다. 이런 생각은 뒤르켐의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와 연결되어 있다.
- 3) 대중들은 문화적 자본을 문화유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며(이기홍, 2005: 3), 문화적 자본을 예술과 비즈니스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합치면 문화자본이 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고(이상철, 2004)하여, 첨단 대중문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 4) 이러한 성향의 체계를 아비투스(habitus)라 하는바, 여러 상황 속에서 행위자가 그 상황을 인지하고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이 아비투스에 따른 것으로, 일응 일정한 방식의 행동과 인지·감지·판단의 성향체계라 할 수 있다.
- 5) 정당한 취향은 고급예술에 대한 취향으로 교육자본이 풍부한 지배계층에 흔하고, 중류취향은 격이 낮은 예술작품에 대한 취향으로 중간계층에 흔하며, 대중취향은 대중음악이나 경음악 같은 대중음악을 선호하며 노동계층에 가장 흔하다고 보았다.

부르디외는 문화적 자본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체화된 형태의 문화적 자본(embodied state cultural capital)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품위, 몸짓과 외모, 자세와 표정, 식습관, 음주습관, 말투와 사용하는 어휘, 교양 등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전수되어 신체와 정신에 오래 지속되는 성향을 말하며, 이른바 ‘아비투스’의 형태로 나타난다. 둘째, 객체화된 형태의 문화적 자본(objectified state cultural capital)은 문학작품(도서), 미술작품, 문화유적, 악기, 기계나 도구, 건물 등의 문화상품의 형태로 존재한다. 여기서 경제적 가치로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상속을 통해 다음세대로 세습될 수 있으며, 소유물뿐만 아니

<표 1> 연구자들의 문화적 자본의 개념과 구성 내용

학자	개념 정의
Dimaggio(1982)	사회적으로 추구하고 소유할 만한 상징 부(富)의 점유 정도를 재는 도구
Bourdieu(1984)	계급적 지위의 지표로서 비공식적 학위기준이자 계급의 속성이며 사회선택(selection)의 기준
DiMaggio & Mohr (1985)	위세적(prestigious) 문화자원에 대한 관심과 경험
Robinson & garnier (1985)	책 구입, 박물관, 극장, 공연관람, 언어습관, 말씨, 대인관계기술과 같은 언어적 문화적 능력
De Graff, P (1986)	공식문화와 예술(고전음악, 연극, 그림, 조각, 문학)에 대한 가치를 통한 적절한 매너와 좋은 취향
Farkas, Grobe, sheehan, & Shaun (1990)	교사가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나 스타일과 같은 비공식적 학업 표준
Granzeboom, De graff, & Robert (1990)	문화적 자산 (자원+처분 가능한 것)- 문화자본보다는 문화재생산의 관점에서
Katsills & Rubinson(1990)	상류층 문화 자산, 행동, 습관, 태도
Mohr & DiMaggio (1995)	위세적 취향, 대상, 문화적 권위체에 의해 타당성을 입증 받은 스타일-사회적 가치 표준의 지속과 해체, 집단적으로 유지, 문화유행의 정기적 변화
Aschaffenburg & Mass(1996)	정당하게 제도화된 것으로서 지배문화 코드, 실천, 언어양식, 미적선호, 상호작용 양식
Kalmijin & Kraaykamp(1996)	태도, 행동, 선호, 자격과 같은 고급지위문화 표시. 일상적인사회 문화적 배제와 포섭을 위해 사용
De graff, De Graff, & Kraaykamp (2000)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상류층 문화 표시 (행동, 취향, 태도)
Sullivan (2001)	지배문화에 친숙함, 특히 교육된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능력 - 언어적성의 중요성
Dumais (2002)	언어· 문화적 능력, 상류층 구성원이 갖는 광범위한 문화 지식
Eitle & Eitle (2002)	태도, 행동, 선호, 자격과 같은 상층 문화표시. 일상적인 사회문화적 배제와 포섭을 위해사용

라 이를 감식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셋째, 제도화된 형태의 문화적 자본 (institutionalized state cultural capital)은 상속받기 보다는 개인이 교육과정을 통해 획득한 문화자본으로, 교육의 제도적 인증서와 같은 학교 졸업장이나 자격증 등을 의미하며 정규교육을 받은 햇수로 측정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비분석은 주로 정해진 효용 수준에서 비용을 극소화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행동으로 파악된 반면, 사회학에서 말하는 소비행위는 고립된 개인의 소비행위가 아니라 소비를 통해서 재구성되는 사회적 관계, 즉 계급간 관계로 전환되고, 경제적 능력보다는 문화적 취향의 차이가 각 계급구성원들의 소비행위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장미혜, 2001: 51-52). 개인의 취향⁶⁾은 사회 속에서 개인들이 차지하는 계급적 위치에 따라 정해진다고 본다.

문화적 자본 개념을 활용한 연구는 사회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문화적 자본에 관한 연구는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문화자본의 존재에 관한 연구(Dimaggio, De Graaf et.al, ; Kraaykamp & Dijkstra, 1999; 양경숙, 2000; 장미혜, 2001, 2002a, 2002b; 조은 2002). 둘째, 문화자본의 조작적 정의에 관한 연구(Lamont & Lareau, 1988; 양종희, 2005). 셋째, 문화자본의 측정에 관한 연구(Aschaffenburg & Mass, 1977; Dimaggio, 1982; Holt, 1998; De Graaf et.al, 2000)가 그것이다.

그리고 한국적 상황에서 문화적 자본 측면에서 상류층 서양고전음악 전공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자신의 상류층 배경을 재생산하는 연구가 있으며(최선희, 2001), 거문고산조에 문화자본을 적용한 연구(송영국, 2003), 수준별 수업에서 문화자본으로서의 감정통제에 관한 연구(정향진, 2003), 문화적 자본을 고급문화와 부유문화로 정의한 연구가 있다(조돈문, 2005). 그리고 문화자본과 소비양식의 관계(장미혜, 2001; 조광익, 2006), 노인들의 문화적 자본에 관한 연구(이기홍, 2005) 등이 있다.

그러나 행정학계에서는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는 다수가 있지만, 아직까지 문화적 자본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회학 분야에서 출발한 문화적 자본이론을 행정학 내지 정책학 특히 문화정책학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실태조사와 면접을 병행하여 지역

6) 취향은 부르디외가 말하는 habitus로서, 직접적이고 본능적으로 미적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이며(부르디외, 1995: 172), 개인의 사적 감정과 주관적 의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성향체계(홍성민, 2002: 23)라고 할 수 있다. 아비투스(=취향)는 “같은 집단이나 계급구성원 모두에게 공통적인 인지, 개념, 행위의 도식 또는 내면화된 구조의 주관적이지만 개인적이 아닌 체계”로서 간주되며, 경제의 계급구분과 계급구성원들의 문화적 상징 및 생활양식을 매개하는 구조이다(Bourdieu 1977:86; 양종희, 1994. 151 재인용).

문화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Ⅲ. 조사설계

1. 조사연구 변수

문화자본의 보유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두 가지 경향이 있다(장미혜, 2001: 49-51). 하나는 부모의 출신계급이나 직업을 문화자본의 간접지표로 활용하는 경우이다(de Graaf et.al. 2000; Holt, 1998). 다른 하나는 부모의 문화자본이 아니라 본인의 문화자본을 직접 측정하는 경우이다(Aschaffenburg & Mass, 1997; DiMaggio, 1982). 장미혜(2001)는 한국사회에서는 부모의 문화자본보다 본인의 문화자본이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문화자본 측정지표로서 자신의 교육수준과 출신계급 중에서 어느 것이 영향력이 더 큰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다. 유년시절 가정에서 이뤄지는 초기 사회화 과정과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이뤄지는 이차 사회화 과정 중에서 어느 것이 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본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이다(조광익, 2006: 391).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르디외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유교양이나 아방가르드에서는 출신계급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였다(Bourdieu, 1995: 21). 양중회(1994)의 연구에 의하면 계급(계층)보다는 교육 및 직업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는 부모와 본인의 문화자본 양자를 고려하면서, 계층과 교육 및 직업요인을 고려하되, 부르디외의 문화자본 3유형론을 토대로 하위변수를 조작화하기로 한다. 먼저 객체화된 문화자본의 설문 구성항목에 관해 National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1988(NELS, 88; Manual, 2003)에서는 공부장소가 따로 있는지 여부, 백과사전이 있는지 여부, 컴퓨터가 있는지 여부, 본인의 방이 있는지 여부로 조작화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문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작화하였다. 즉 클래식 음반, 악기, 그림·판화 화보(화집), 회화·서예작품, 영화 DVD, 문화관련 백과사전 전집, CATV(예술TV) 시청, 문화공간 보유여부로 세분화하였다.

우리나라처럼 계급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는 사회에서는(박명진, 1998) 어떤 활동을 고급(상류)문화예술로 규정할 것인지 난제이고, 오늘날 매스컴의 영향으로 고급문화로 분류되는 것을 일반대중도 얼마든지 감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급문화에의 참여정도만으로 문화자본의 양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상류층이 즐기는 특정문화영역에 대한 열정이 세대간으로 전수되는 것도 아니다(van Eijck, 1999; 송현저, 2006: 21). 그래서 본고에서는 문화예술

<표 2> 변수의 조작화

범주	측정방법	주요 연구자	변수의 조작화	실문문항
객체화된 문화자본	문화예술 작품소유 및 소비	Dimaggio & Useem(1987)	문화예술 작품 소유 여부 : 클래식 음반, 악기, 그림·판화 화보(회집), 회화·서예작품, 영화 DVD 보유여부 및 CATV(예술TV) 시청여부	문 1.1~1.5, 1.7
		Dimaggio & Osrower(1990) Katsillis & Rubinson(1990) Aschafenburg & Mass(1997) Teachman(1987) Persell and Cookson(1874)	문화예술 소비(향유) 여부 :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음악회, 전통예술공연, 연극, 무용, 영화,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박물관 전시회, 미술서예수강 여부 문화관련 백과사전 전집 보유 여부	문 2-1~2-11 문 1.6
	가정의 문화환경	Teachman et al. (1977) Teachman (1987)	문화공간 보유 여부	문 1.8
제도화된 문화자본	문화예술 관련 교육여부	Kastillis & Rubinson (1990)	국내의 예술가에 대한 지식 정도 : 가수, 클래식 연주자, 지휘자, 성악가, 작곡가, 소설가, 영화배우 등에 대해 아는 정도	문 16-1 ~ 16-10
			최종학교 졸업 이전 문화예술 교육 경험 : 악기, 성악, 무용, 미술(서예), 독서 등에 대한 교육수강 시기, 교육기간	문 14-1 ~ 14-3
체화된 문화자본	문화활동에의 흥미또는 관심, 취향 및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	Farkas et al. (1990) DiMaggio (1982) DiMaggio & Mohr (1985)	관심(태도, 이해관계) : 예술, 음악, 문학, 자아이미지에 관심이 있는가?(예: 나는 교양을 갖춘 사람인가?)	문13-1-1 ~ 13-1-10
			삶에 대한 가치 순위 평가 : 창조성, 사회적 지위, 경제력, 개성, 가족, 취미, 건강, 명성, 외모등	문 4-1 ~ 4-4
			문화예술활동에의 친숙정도 : 친족, 관심, 빈번한 활동, 정보	문 5-1 ~ 5-4
			어릴적 문화예술활동에의 친숙정도 : 친족, 부모의 관심, 부모의 예술활동 기회제공, 부모의 문화정보 제공	문 15-1 ~ 15-5
			중학교 졸업(만 14-15세) 이전 부모와 함께 문화예술 경험정도 : 가족과 함께 음악, 영화, 미술전시회, 서예 등 경험 여부	문 10-1 ~ 10-10 문10-3-1 ~ 13-3-10 문 11-1 ~ 11-7 문12-1-1~ 12-1-10 문 12-4-1 ~ 12-4-8
			음악 장르 선호 : 트로트, 발라드, 락, 랩, 클래식, 뮤지컬 등 음악 장르의 고급성에 대한 평가 음악 감상 패턴의 변화 영화 장르 선호도: 공포, 드라마/멜로, 미스터리, 액션, 애니메이션, 코미디 등 영화 감상 패턴의 변화	문 8-1 ~ 8-10
문화 및 학문활동에 대한 기대	Teachman & Paasch (1998)	문화예술활동에의 참여경험 : 뮤지컬, 클래식 음악, 전통예술, 미술, 연극, 대중음악 콘서트, 영화, 문학작품, 교양도서, 만화 - 온라인 동호회 활동 경험 - 창작, 발표 활동 매체(TV, 컴퓨터등)를 통한 문화예술활동 : 뮤지컬, 클래식 음악회, 전통예술공연, 미술전시회, 연극, 콘서트, 영화(애니), 영화소개 프로그램, 책 소개 프로그램, 만화책	문 6-1 ~ 6-10	

활동에의 참여경험 여부조사도 창작·발표 이외에도 온라인상의 동호 활동이나 매체(TV, 컴퓨터등)를 이용한 참여도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그리고 가정배경은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직업이 대리변수(proxy)로서 대표적 지표라고 할 수 있지만(방하남·김기현, 2002; Sullivan,

2001), 본고에서는 직업요인은 분류의 애매성 때문에 제외하고 가정배경 구성 하위변수로 본인과 부모의 학력수준, 문화생활비, 한달 평균가계수입, 본인이 소속한다고 판단하는 사회계층, 연령, 성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2.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자본의 조사를 위해 2008년 8월부터 10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원을 통해 회수된 설문지는 총 211부이고,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광주·전남 지역 거주자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현재 광주지역 거주자는 133명이었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세부분류	빈도수(백분율)	구분	세부분류	빈도수(백분율)	
성별	남	99명(52.8%)	한달 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14명(7.2%)	
	여	96명(49.2%)		100~200만원	23명(11.7%)	
연령	10대	7명(3.6%)		200~300만원	41명(20.9%)	
	20대	90명(46.2%)		300~400만원	53명(27.1%)	
	30대	20명(10.3%)		400~500만원	36명(18.4%)	
	40대	44명(22.6%)		500~600만원	17명(8.7%)	
	50대	30명(15.4%)		600만원 이상	12명(6.1%)	
	60대 이상	4명(2.1%)		한달 평균 문화생활비	3만원 미만	57명(29.4%)
소속 계층	하층	15명(7.8%)			3~5만원	64명(33.0%)
	중하층	64명(33.3%)			5~10만원	44명(22.7%)
	중층	96명(50.0%)			10~15만원	14명(7.2%)
	중상층	16명(8.3%)			15~20만원	9명(4.6%)
	상층	1명(0.5%)	20~30만원		4명(2.1%)	
			30만원 이상	2명(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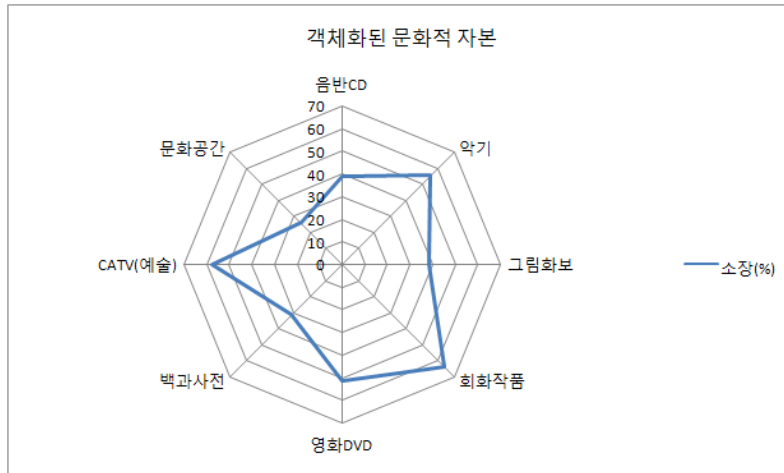
IV. 문화적 자본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1. 객체화된 문화적 자본

수도권 일극중심체제의 성격을 갖는 한국 상황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문학작품, 미술작품, 악기 등 문화상품의 소유여부를 둘러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남도 예향의 잠재적 특성을 반영하듯이 회화나 서예작품 등 보유한 비율이 전체 유효응답자의 64.1%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CATV(57.8%)와 악기(55.6%) 순으로 조사되었다. 클래식 음반이나 문화관련 백과사전 보유비율은 30%대에 불과하고, 집안에 독립적인 문화공간 보유비율은 25.7%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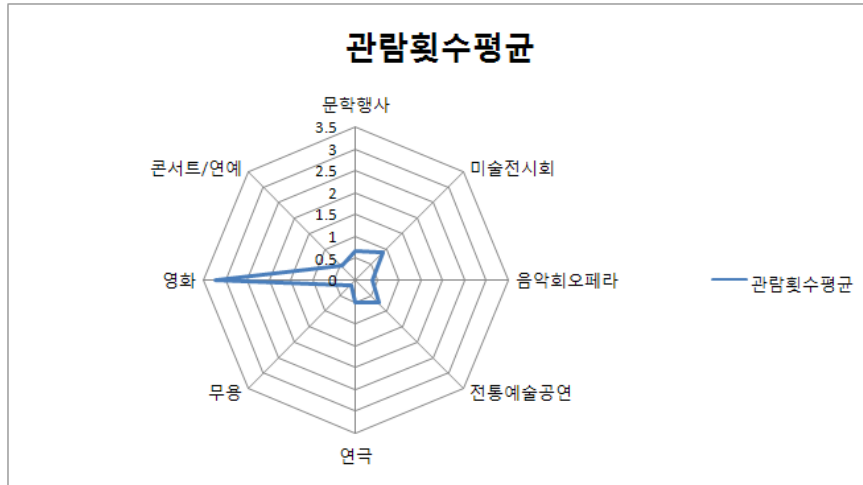
<그림 1> 객체화된 문화적 자본의 소장 비율 분포



문화인 내지 문화애호가 는 하루 아침에 태어나지 않고 문화에 눈뜨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주간한국. 2009.3.17, 한국일보), 인위적으로 확대재생산이나 가공할 수 없는 문화유적은 역사적 산물이기에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역민의 문화향유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도 객체화된 문화적 자본의 보유비율은 증대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은 하드웨어 차원에서는 전국 자치단체 단위별로 대부분 설치되어있지만, 저조한 이용을 제고를 위해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객체화된 문화적 자본의 다른 요소인 문화예술활동 참여경험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 단위기간 동안의 영화관람횟수가 3.23회로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다른 문화예술 소비는 평균 1회를 밑도는 정도로 매우 낮은 문화향유 실태를 시현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미술전시회(0.88회) > 전통예술공연(0.74회) > 문학행사 참여(0.67회) > 연극관람(0.52회) > 대중가요 콘서트(0.46회) > 클래식 음악회(0.38회) > 무용(0.17회)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 지난 1년동안 문화활동 참여 경험



위 <그림 2>에서 보듯이 다양한 문화활동 유형 중에서 평균 문화예술 관람 빈도가 가장 높은 것도 영화이지만, 영화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관람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장르로 조사되고 순승가울 역시 높게 조사되어(7), 다른 장르에 비해 영화에 대한 대중적 친숙성과 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의 지역적 편중으로 인한 일반화 가능성의 제약을 상쇄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문화예술행사 관람 : 2000년, 2003년, 2006년의 비교

(단위 : %)

구분	예술행사 관람율			연평균 예술행사 관람횟수		
	2006년	2003년	2000년	2006년	2003년	2000년
예술행사						
문학행사	4.4	4.0	5.1	0.1	0.1	0.1
미술전시회	6.8	10.4	11.6	0.2	0.2	0.3
클래식음악회/오페라	3.6	6.3	6.7	0.1	0.1	0.2
전통예술공연	4.4	5.2	7.7	0.1	0.1	0.1
연극	8.1	11.1	10.9	0.2	0.2	0.2
무용	0.7	1.1	2.0	0.01	0.01	0.03
영화	58.9	53.3	40.0	3.9	3.5	2.2
대중가요 콘서트/연예	10.0	10.3	8.6	0.2	0.2	0.2

자료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ii,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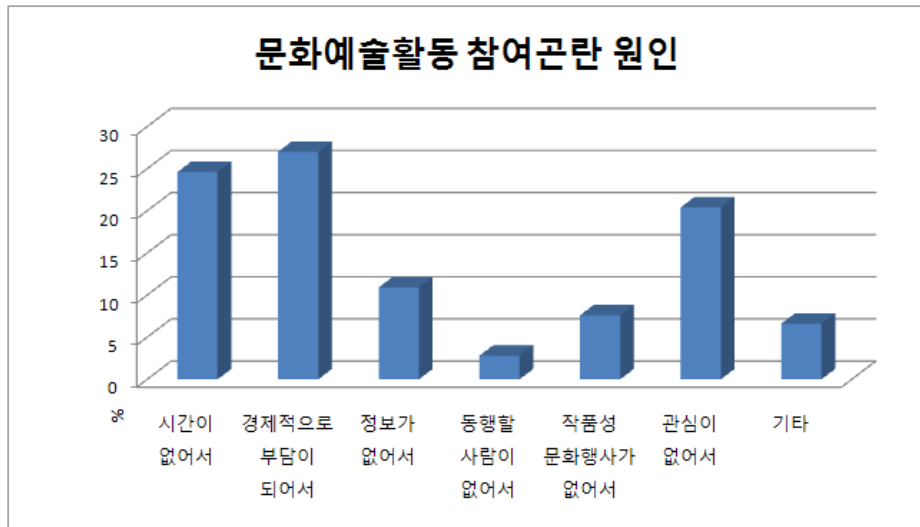
7) 영화의 경우 이전에 비해 관람횟수가 ‘늘었다’(28.9%), ‘그대로다’(31.8%), ‘줄었다’(16.6%), 무응답(22.7%)로 조사되었고, 무용의 경우 ‘늘었다’(2.8%), ‘그대로다’(10.4%), ‘줄었다’(7.1%), 무응답(79.6%)로 조사되었다.

문화관광부에서 15세 이상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다단계층화무작위표집법에 의해 추출된 3,000명을 대상으로 2006년 6월 21일부터 7월 21일까지 1:1 면접방법에 의해 실시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위 <표 4>에서 보듯이 영화와 문학행사를 제외하고는 예술행사의 향유 및 관람경험이 줄어들었다. 물론 지난 1년 동안 예술행사 관람율은 65.8%로서 2003년의 62.4%, 2000년의 5.4%보다 높아졌지만, 내용 면에서 보면 영화관람 횟수가 늘어났을 뿐 다른 분야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 국민들의 소득증대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경향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영화와 문학행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술행사 관람율은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일정한 의미를 도출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산업양극화와 소득양극화 현상 속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려할 때, 모든 국민은 문화를 향유하고 누릴 문화권이 있다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조건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로부터, 문화향유의 참여가 배제되어 사회적 취약계층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현상을 탈피하는 것은 문화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정책문제이다.

한편 본 설문조사에서 영화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저조한 문화예술활동에 대해 그 참여 곤란 원인에 대해 물어본 결과 아래 <그림 3>에서 보듯이, ‘경제적으로 부담되어서’(27.0%) > ‘시간이 없어서’(24.6%) > ‘관심이 없어서’(20.4%) > ‘정보가 없어서’(10.9%) > ‘작품성 문화행사가 없어서’(7.6%)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문화예술활동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요인은 경제적 변수로서 맹자가 말한 바처럼⁸⁾ 일반시민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문화활동을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해주고 있다. 경제불황기에는 생존의 기본조건 충족이 아닌 문화활동을 전개할 경제적·심리적 여유가 줄어든다. 시간에 쫓겨 사는 바쁜 현대인들의 시간 요인도 문화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문화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도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곤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5일근무제 즉 주2일휴무제가 정착되고,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되고, 정보통신시대를 넘어 문화와 감성이 시대의 트렌드로서 자리매김을 시작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 문화정책적으로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문화티켓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시간제약과 무관심층에 대해서는 거리와 시장을 포함한 마을 등 일상생활공간에까지 문화가 전파되도록 문화정책활동을 전개하여,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culture led regeneration) 및 아름다운 문화마을 만들기 그리고 생활문화(lived culture)의 확산을 위한 사업들을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有恒產有恒心

<그림 3> 문화예술 활동 참여 곤란의 원인



2. 제도화된 문화적 자본

제도화된 형태의 문화적 자본은 개인이 교육과정을 통해 획득한 문화자본으로, 본고에서는 국내외 예술가에 대한 지식정도와 최종학교 졸업 이전에 문화예술관련 교육경험 여부로 조작화해 조사하였다.

<표 5> 문화예술교육 수강시기와 기간

구분		악기연주	성악(합창)	무용	미술서예	독서 및 글짓기
교육받은 시기	무응답	162명(76.8%)	189명(89.6%)	191명(90.5%)	156명(73.9%)	173명(82%)
	만12세 이전	28명(13.1%)	12명(5.7%)	7명(3.3%)	24명(11.4%)	20명(9.51%)
	만13~18세이전	13명(6.2%)	2명(0.9%)	7명(3.3%)	16명(7.6%)	13명(6.2%)
	만 19세 이후	8명(3.8%)	8명(3.8%)	6명(2.8%)	15명(7.1%)	5명(2.4%)
교육기간	무응답	160명(75.8%)	187명(88.6%)	190명(90.0%)	157명(74.4%)	176명(83.4%)
	6개월 미만	11명(5.2%)	11명(5.2%)	9명(4.3%)	17명(8.1%)	13명(6.2%)
	6개월~1년미만	12명(5.7%)	7명(3.3%)	4명(1.9%)	16명(7.6%)	7명(3.3%)
	1년~2년미만	8명(3.8%)	3명(1.4%)	2명(0.9%)	11명(5.2%)	11명(5.2%)
	2년~5년미만	10명(4.7%)	3명(1.4%)	3명(1.4%)	3명(1.4%)	1명(0.5%)
	5년이상	10명(4.7%)	-	3명(1.4%)	7명(3.3%)	3명(1.4%)

위 <표 5>에서 보듯이 최종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문화예술교육 수강경험에 대한 조사결

과를 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관련 교육경험은 성악과 무용은 10% 내외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독서와 글짓기는 20%대, 악기연주와 미술서예 경험은 25%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그것도 교육받은 시기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이뤄지고, 중고등학교 이상으로 갈수록 문화교육 경험은 대체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교육기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성인인 조사대상자들이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경험은 거의 대부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응답자 211명중 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장르별로 많게는 11명 적게는 2명에 불과하였다.

<표 6> 국내외 예술가의 인지정도

구분	대중가요 가수	클래식연주자	클래식음악지휘자	성악가	작곡가	화가	소설가	영화배우	영화감독	만화가
평균값	3.29	2.00	1.76	2.08	2.18	2.08	2.56	3.18	2.61	2.07

범례 : 1=전혀 모름, 2=모르는 편, 3=조금 아는 편, 4=아는 편, 5=많이 아는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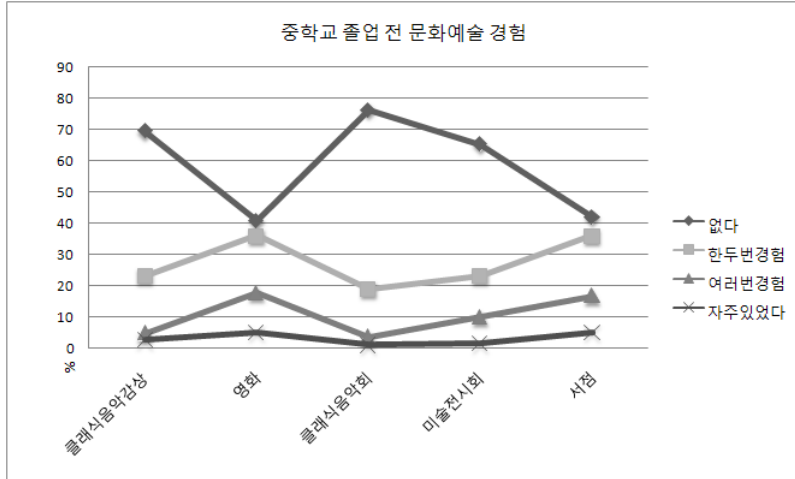
3. 체화된 문화적 자본

부르디외가 제시한 체화된 문화적 자본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교양, 세련됨, 품위 등을 가리키는 바, 이는 주로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에 의해 전수된다. 한편 드 그라프와 동료들(De Graaf et al. 2000)은 부모의 독서형태가 아동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문화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15세 이전에 부모와 박물관, 오페라, 발레공연, 클래식 음악 공연, 연극공연에 1년에 몇 회 참석하였는지 설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원용하여 중학교 졸업이전(만 14-15세 이전)에 가족과 함께 한 문화향유 경험을 조사하였다.

가정의 문화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중학교 졸업이전에 가족과 함께 문화예술활동 경험여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래 <그림 4>에서 보듯이 15세 이전 가족이 공유한 문화활동으로 영화관람과 교양서적 등 책 구입 형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클래식음악회 참석이나 클래식 음악감상 경험이 없는 경우는 76.2%, 69.3%로 높게 나타났고, 미술전시회 참석 경험이 없는 경우도 역시 65.1%로 나타나 음악과 미술 등 고급문화에 대한 향유경험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중문화 영역에 속하는 영화 관람 경험은 다른 장르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 <그림 2>와 맥락을 같이 한다. 어린 시절의 문화경험은 초기 사회화과정으로부터 향후 성장과정에서의 문화활동과 문화적 감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볼 때, 아직 고급문화 향유경험은 매우 낮으며 문화를 경험한 경우에도 대부분 한두 번의 경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상생활에서 접근성과 방문기회가 용이하게 주어지

는 영화나 서점방문 경험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중학교 졸업 이전 문화예술경험 유무



<표 7> 중학교 졸업 이전 가족과 함께 한 문화 경험의 교차분석

단위 : 명(%)

구분		개인의 한달 평균 문화생활비					카이제곱 (p값)	가족의 한달 평균 총 수입					카이제곱 (p값)
		10만원 미만	10-20만원	20-30만원	30만원 이상	전체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400만원 이상	전체		
클래식 음악	있다	39(67.2)	16(27.6)	2(3.4)	1(1.7)	58(100)	19.946 (0.000)	14(24.6)	21(36.8)	22(38.6)	57(100)	3.834 (0.147)	
	없다	119(92.2)	7(5.4)	2(1.6)	1(0.8)	129(100)		23(17.7)	68(52.3)	39(30.0)	130(100)		
영화	있다	92(81.4)	17(15.0)	2(1.8)	2(1.8)	113(100)	3.762 (0.288)	21(18.9)	48(43.2)	42(37.8)	111(100)	3.218 (0.200)	
	없다	68(89.5)	6(7.9)	2(2.6)	-	76(100)		16(20.5)	48(43.2)	42(37.8)	78(100)		
음악회	있다	34(75.6)	8(17.8)	2(4.4)	1(2.2)	45(100)	4.655 (0.199)	11(25.0)	16(36.4)	17(38.6)	44(100)	3.034 (0.219)	
	없다	125(88.0)	14(9.9)	2(1.4)	1(0.7)	142(100)		25(17.5)	73(51.0)	43(31.5)	143(100)		
미술 전시회	있다	50(75.8)	13(19.7)	1(1.5)	2(3.5)	66(100)	9.311 (0.025)	13(20.0)	26(40.0)	26(40.0)	65(100)	2.465 (0.292)	
	없다	108(89.3)	10(8.3)	3(2.5)	-	121(100)		24(19.7)	62(50.8)	36(29.5)	122(100)		
서점	있다	90(81.1)	18(16.2)	1(0.9)	2(1.8)	111(100)	7.309 (0.063)	19(17.3)	50(45.5)	41(37.3)	110(100)	2.699 (0.259)	
	없다	70(89.7)	5(6.4)	3(3.8)	-	78(100)		18(22.5)	41(51.3)	21(26.3)	80(100)		

위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간 경험과 부모님과 함께 참고서가 아닌 교양도서나 소설 등 책을 사러 서점에 간 경험을 제외하고는, 클래식 음악감상이나 클래식 음악회 참석과 미술전시회 관람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아래 <표 8>에서 보듯이 조

사대상자의 부모학력과 가족 문화경험 공유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여주는 바($p < 0.05$), 음악·미술·영화 등의 문화경험은 부모의 학력이 초등학교졸업 보다는 중고등학교 졸업배경을 가진 부모를 가진 사람에게서 월등이 높은 관계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대학교 학력을 가진 부모집안이라고 해서 중고등 학력을 가진 부모집안보다 더 높다는 일관성은 보이지 않는다.

<표 8> 중학교 졸업 이전 가족과 함께 한 문화 경험의 교차분석

단위 : 명(%)

구분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초등*	중고등	대학**	전체	카이제곱(p값)	초등	중고등	대학	전체	카이제곱(p값)
클래식 음악	있다	3(5.6)	22(40.7)	29(53.7)	54(100)	18.759 (0.000)	7(13.2)	33(62.3)	13(24.5)	53(100)	12.065 (0.002)
	없다	32(25.4)	64(50.8)	30(23.8)	126(100)		48(38.4)	61(48.8)	16(12.8)	125(100)	
영화	있다	9(8.3)	54(50.0)	45(41.7)	108(100)	26.237 (0.000)	19(17.8)	66(61.7)	22(20.6)	107(100)	23.884 (0.000)
	없다	28(37.8)	32(43.2)	14(18.9)	74(100)		38(52.1)	28(38.4)	7(9.6)	73(100)	
음악회	있다	3(7.3)	10(24.4)	28(68.3)	41(100)	30.562 (0.000)	7(17.5)	20(50.0)	13(32.5)	40(100)	11.565 (0.003)
	없다	33(23.7)	75(54.0)	31(22.3)	139(100)		49(35.5)	73(52.9)	16(11.6)	138(100)	
미술 전시회	있다	4(6.6)	21(34.4)	36(59.0)	61(100)	32.337 (0.000)	10(16.7)	35(58.3)	15(25.0)	60(100)	11.763 (0.003)
	없다	32(26.9)	65(54.6)	22(18.5)	119(100)		46(39.0)	59(50.0)	13(11.0)	118(100)	
서점	있다	7(6.6)	53(50.0)	46(43.4)	106(100)	34.366 (0.000)	20(19.0)	63(60.0)	22(21.0)	105(100)	20.627 (0.000)
	없다	30(39.5)	34(44.7)	12(15.8)	76(100)		38(50.7)	30(40.0)	7(9.3)	75(100)	

범례 : * 초등학교는 무학을 포함
 ** 대학에는 전문대학과 대학원 이상을 포함

그리고 아래 <표 9>에서 보듯이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높고(친숙도 평균=4.04) 친근하게 느끼고 있지만(3.493),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고 실제 문화예술활동 빈도 역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어릴 적 부모가 문화예술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준 정도나 실제 문화활동을 시킨 정도나 문화예술정보 제공 정도가 모두 평균 이하로 낮게 나타나 초기 사회화과정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친숙정도는 저조하게 조사되었다.

<표 9>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친숙도, 어릴 적 문화예술에 대한 친숙도

구분	문화예술에 대한 친숙도 일반				어릴적 문화예술에 대한 친숙도			
	문화예술 활동 친숙도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문화예술 활동빈도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	본인의 문화예술 활동 친숙도	부모가 문화에 관심갖게 해준 정도	부모가 문화예술 활동시킨 정도	부모의 문화예술 정보제공 정도
평균	3.493	4.04	3.23	3.13	2.863	2.85	2.95	2.79

범례 : 1=매우 그렇지 않다, 4=보통, 7=매우 그렇다

한편 대중음악중 가장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풍기는 장르는 클래식(5.44) > 뮤지컬(5.26) > 국악 등 전통음악(5.12)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가장 선호하는 음악 장르는 발라드(5.14) > 뮤지컬(4.33) > 클래식(4.23) > 트로트(4.15) 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고급이미지를 띠는 장르가 꼭 대중들이 선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고급문화보다는 대중문화를, 나아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로의 정책전환을 시도해야 할 논거 중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판단여지를 제공한다. 한편 서울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선호 음악 장르에서 발라드가 가장 높고 트로트가 선호되는 것은 공통된 경향이나(박현주, 2006: 31-32), 서울에 비해 광주전남지역의 뮤지컬과 클래식 선호도가 높은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이는 남도가 예향이라는 점과 최근 들어 뮤지컬 인구가 급증한 데에서 그 이유의 일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9).

<표 10> 음악장르 선호도, 음악장르의 고급이미지에 대한 평가

	음악 장르 선호도(평균)*	음악 장르 고급이미지 인식(평균)**
트로트/뽕짝	4.147	3.815
발라드/R&B	5.14	4.73
락/헤비메탈	3.27	3.65
랩/힙합	3.73	3.71
컨트리/포크	3.53	4.28
전통음악(국악 등)	3.78	5.12
재즈/블루스	3.69	4.99
클래식	4.23	5.44
뉴에이지/크로스오버	3.83	4.80
뮤지컬	4.33	5.26

범례: * 1=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4=보통, 7=매우 좋아한다.

** 1=전혀 고급스럽지 않다, 4=보통, 7=매우 고급스럽다.

9) 티켓링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체 공연수는 6,187편에 매출액은 1,230억원 정도다. 이 중 뮤지컬수는 총 1,009편, 관객수는 270만명이다. 매출액은 650억원 가량으로 매출 기준으로 전체 공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한경비즈니스, 2006.4.24, 제542호).

<표> 히트 뮤지컬과 영화의 비교

구분	오페라의 유령(뮤지컬)	쥬라기공원(영화)
전세계 총수입	2,000	918
제작비(마케팅비용 포함)	9	70
공연 및 상영기간	10년 이상	20주

출처 : Harold L.Vogel(2001). Entertainment Industry Economics.

그리고 음악 향유활동에 대해서 보면, 조사대상자들은 지난 1년동안 음악CD 구입과 음악회 가는 빈도가 경제적 불황의 여파 등의 영향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개인적으로 음악을 듣는 시간이나 사람들과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는 빈도 역시 많이 줄어들어 마음의 여유까지 각박해지는 듯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11> 지난 1년 동안 음악 감상 패턴의 변화

단위 : %

구분	평균	줄었다	변함없다	늘었다
음악을 듣는 시간	2.63	47.8	26.1	26.1
CD/LP 구입 횟수	1.94	63.1	29.9	7.0
듣는 음악 장르의 다양성	2.75	32.7	37.9	29.3
좋아하는 음악가/가수/연주자의 수	2.82	28.9	39.8	31.3
음악에 대한 지식	2.56	36.5	43.6	19.9
사람들과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는 빈도	2.39	44.5	40.3	15.1
음악회(공연장)에 가는 빈도	2.15	52.6	39.3	8.1

범례 : 1=많이 줄었다, 3=변함이 없다, 5=많이 늘었다.

그리고 설문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영화 장르는 액션(4.8) > 코미디(4.7) > 미스터리(4.6)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2> 영화 장르 선호도

구분	공포/호러	드라마/멜로물	미스터리/스릴러	예술영화/다큐	액션/어드벤처	SF/판타지	코미디	무협영화	애니메이션	성인영화
평균	3.365	4.47	4.57	4.14	4.80	4.33	4.70	3.64	4.03	3.43

범례 : 1=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4=보통, 7=매우 좋아한다.

<표 13> 지난 1년동안 영화감상 패턴의 변화

단위 : %

구분	평균	줄었다	변함없다	늘었다
영화를 보는 시간	2.592	47.4	25.1	27.5
DVD 타이틀 구입 횟수	2.03	53.1	41.7	5.2
좋아하는 영화배우, 감독의 수	2.71	30.3	46.4	23.3
영화에 대한 지식	2.61	34.1	46.9	19.0
사람들과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빈도	2.64	37.0	39.3	23.7
극장에 가는 빈도	2.54	49.3	25.1	25.6
대여점에서 DVD/비디오 빌리는 빈도	2.13	53.6	35.5	10.9

범례 : 1=많이 줄었다, 3=변함이 없다, 5=많이 늘었다.

그리고 위 <표 13>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1년 동안 영화감상 패턴의 변화를 묻는 설문 응답을 보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특히 DVD 타이틀 구입횟수나 대여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반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경우가 늘고, 좋아하는 영화장르의 다양성과 좋아하는 영화배우나 감독의 수는 상대적으로 늘었다.

<표 14> 지난 1년 동안 창작 또는 발표 등 예술 활동 경험 여부

예술활동의 종류	매체를* 통한경험 (평균횟수)	온라인 동호회 활동 참여 경험			창작 혹은 발표활동 경험		
		있다(%)	없다(%)	평균**	있다(%)	없다(%)	평균**
1) 뮤지컬	0.796	5.2	94.8	0.05	2.4	97.6	0.02
2) 클래식 음악, 오페라	0.806	8.1	91.9	0.08	2.8	97.2	0.03
3) 전통예술(사물놀이, 국악, 판소리 등)	1.555	13.7	86.3	0.14	8.5	91.5	0.09
4) 미술(회화, 공예, 조각, 사진, 서예 등)	1.209	16.6	83.4	0.17	7.6	92.4	0.08
5) 연극	0.725	9.0	91.0	0.09	3.8	96.2	0.64
6) 대중음악(가수/연주자의 팬클럽 포함)	2.175	20.4	79.6	0.20	5.2	94.8	0.05
7) 영화(애니메이션 포함)	8.318***	22.3	77.7	0.22	5.7	94.3	0.06
8) 문학작품	-***	17.1	82.9	0.17	8.5	91.5	0.09
9) 교양도서	4.081***	20.9	79.1	0.21	9.0	91.0	0.09
10) 만화	2.820	12.3	87.7	0.12	5.2	94.8	0.05

범례 : * 여기서 매체라 함은 TV, 비디오, DVD, 컴퓨터(인터넷) 등을 통한 문화예술 감상을 말할

** 1=있다, 0=없다

*** : 매체를 통한 영화감상 평균횟수는 8.318이고, 영화소개 프로그램(출발 비디오여행 등) 을 본 경우는 8.232로 조사되었고, 책 소개 프로그램(TV, 책을 말하다)을 본 평균횟수는 4.081로 조사되었고, 문학작품은 따로 설문하지 않음

위 <표 14>에서 보듯이 지난 1년 동안 창작 또는 발표 등 문화예술 활동을 직접 수행한 경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고급문화는 그 출발과 내용이 왕실과 귀족 및 종교의 후원 하에 발달하여 일반대중의 삶과는 유리된 것이 사실이다. 한편 2007년 주요 트렌드의 키워드는 2006년부터 화두가 된 ‘UCC’이다(일간스포츠, 2007.1.1). 미국의 시사주간지 <Time>에서 2006년의 인물로 ‘You’라고 적힌 컴퓨터화면을 꼽은 이유도 ‘UCC’의 식지 않는 열풍 때문이다. 이렇듯이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UCC) 현 시대상황에 맞춰 고급문화로부터 대중문화와 생활문화로 문화정책방향의 우선순위와 강조점이 이동되어야 한다고 본다. <표 14>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직접 고급문화활동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문화예술과 관련된 온라인동호회 활동은 직접 참여경우보다 4배 가량 평균이 높다. 특히 영화(0.22), 교양도서(0.21), 대중음악(0.20), 미술(0.17), 문학작품(0.17) 등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문화예술활동에의 간접 참여 속에 관심을 키워 문화적 감수성과 역량을 증대하고 있

다. 특히 TV 등의 매체를 통한 문화경험은 영화(8.318), 교양도서(4.08), 만화(2.82) 등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묻는 설문에서, 조사대상자들의 하위 분류, 즉 학생, 공무원, 문화관광해설사에 관계없이 건강이라는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으로 가족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웰빙(참살이)와 LOHAS 시대에 건강은 으뜸가치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서처럼 건강을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질병이 없는 상태라고 간주할 때,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건강을 위해 개인과 지역공동체에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지역문화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갈수록 개인주의화되어가는 시대에 가족간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는 매개장치로서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표 15>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구분	그룹1(대학생)	그룹2(직장인)	그룹3(해설사)	합계
무응답	5명(5.4%)	9명(16.1%)	16명(25.8%)	30명
창조성	6명(6.5%)	1명(1.8%)	6명(9.7%)	13명
사회적 지위	9명(9.7%)	2명(3.6%)	3명(4.8%)	14명
경제력	16명(17.2%)	6명(10.7%)	5명(8.1%)	27명
개성	3명(3.2%)	2명(3.6%)	-	5명
가족	18명(19.4%)	14명(25.0%)	11명(17.7%)	43명
친구	2명(2.2%)	-	1명(1.6%)	3명
취미생활	4명(4.3%)	-	3명(4.8%)	7명
건강	27명(29.0%)	21명(37.5%)	16명(25.8%)	64명
명성	3명(3.2%)	1명(1.8%)	1명(1.6%)	5명
합계	93명(100%)	56명(100%)	62명(100%)	211명

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자본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를 시도해보고, 지역사회에서의 문화 향유 실태를 조사하여 양자를 연계함으로써,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와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와 관련된 사회학과 문화정책학의 통합적 접근시각에서 정책적 과제와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문화민주주의는 예술인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의 문화를 말한다. 문화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으로, 연구자는 문화의 개념을 넓게 보아 생활문화 개념을 도입하면서 유연한 정책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문화민주주의 개념을 사용할 때 모든 사람이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만들 수 있다면, 생활문화는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권의 차원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어야 하며, 문화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정신적 여과(카타르시스) 기능을 누리고, 나아가 문화창조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오늘날 통섭 내지 융합의 시대에 학문간 경계를 넘어 사회학과 정책학 특히 문화정책학의 통합적 연구를 시도하는 점에서, 행정학계에서는 생소한 문화적 자본 개념을 차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방화시대에 문화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을 위한 시론적 연구를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다만 문화향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조사대상 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조사대상이 광주전남지역에 국한된 점에서 연구의 한계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문화향유 실태를 감안할 때 중하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와 전국적 조사자료와 서울지역 통계를 부분적으로 비교보완하여 일반화 한계를 다소 극복하고 문화향유 실태 조사와 문화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점에서 다소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역민의 문화향유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도 객체화된 문화적 자본의 보유비율은 증대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은 하드웨어 차원에서는 전국 자치단체 단위별로 대부분 설치되어있지만, 저조한 이용을 제고를 위해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국민(지역주민)의 문화권 구현과 문화향유 참여 배제의 고착화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 문화의 민주화를 위한 문화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체화된 문화적 자본의 차원에서 볼 때,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UCC) 현 시대상황에 맞춰 고급문화로부터 대중문화와 생활문화로 문화정책방향의 우선순위의 강조점이 이동되어야 한다고 본다. 고급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엘리트의 수월성(excellence)있는 작품을 통해 국가의 품위가치(prestige value)를 선양하도록 하는 문화의 수월성 추구정책은 지속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문화의 민주화를 위한 정책들의 실효성과 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고려할 때¹⁰⁾, 개방과 소통과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웹 2.0시대를 사는 세대들이 갖

10) 고전음악이나 오페라나 발레 등과 같은 고급예술을 일반대중들에게 보급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고급예술을 감상할 기회를 대중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아직 고급예술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지 못하고, 대중들이 그만큼 가지도 않는다. 예컨대 미국에서 1993년에 실시한 조사통계자료에 의하면, 10명중 7사람이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간 반면, 무용이나 발레공연을 보러 간 사람은 5명중 1명에 불과했으며, 6명중 1명이 채 안되는 사람만이 고전음악회나 오페라를 보러 갔다고 한다(Lewis, 2000). 런던에서 무료연극 공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무료공연과 유료공연을 관람한 학생들의 특성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극을 본 학생들의 문화예술 수요는 그들의 학업과 연관되어 있지 그들의 현재 소득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특정 문화예술공연이 무료이던 아니면 아주 싼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어도 기호가 다른 사람들

는 열린 공동체 지향성과 디지털 유목민 성격¹¹⁾과도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생활문화적 지역문화정책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문화의 민주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효과성을 평가함과 아울러, 일반시민들의 문화역량을 확대하는 정책방향으로 나감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삶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삶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마음과 정신의 건강을 위해 개인과 지역공동체에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지역문화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갈수록 개인주의화되어가는 시대에 가족간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는 매개장치로서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지역에서 세계화시대 새로운 차원의 문화적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들과 그 자녀들을 위한 문화교육과 문화예술 체험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김경욱. (2003).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한국문화경제학회. 문화경제연구 6(2)
- 김홍규(1997). 사회과학통계분석. 서울: 나남출판
- 김정수. (2003). 문화행정의 환상과 실상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 김창남. (1998). 「대중문화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 레오 로웬달. (1998). 대중문화론의 역사적 전개, 강현두편, 「현대사회와 대중문화」, 서울: 나남출판.
- 로버트 앤더슨. (2001). 박물관 운영과 재정: 계획과 기회 「박물관소식」 가을호
- 박현주(2006). 서울시 권역별 문화적 특성 연구. 정보통신정책 제19권 4호
- 방하남·김기현. (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193-222,
- 보네위츠. (2000). 부르디외 사회학 입문. 서울: 새물결
- 부르디외. (1995).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하. 최종철역. 서울: 새물결
- 부르디외. & 파세롱. (2000). 재생산. 이상호역. 서울: 동문선
- 서순복. (2007). 지역문화정책. 광주: 조선대학교출판부
- 송영국. (2003). 문화자본의 생산과 재생산-가야금 산조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제39집. 121-138

로부터는 수요를 창출할 수 없거나 아주 미미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여,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지원만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었다(Schuster, 1994).

- 11) 김호기는 웹 2.0세대의 특징으로 첫째 개인주의적⁵이면서도 소통을 강조하는 열린 공동체를 지향. 둘째, 모바일과 인터넷을 자신의 표현수단으로 하는 이른바 '디지털 유목민'. 셋째, 자실현을 소중히 하는 '탈물질주의 가치' 세대. 넷째, 부모인 386세대로부터 사회비판의식을 학습한 '격세유전'적 특성을 지닌 새대를 들고 있다(한겨레신문, 2008.5.14)

- 스윈지우드. (1998). 대중문화의 신화, 이강수편, 「대중문화와 문화산업론」, 서울: 나남출판
- 양경숙. (2002). 문화생산의 장과 문화연구의 신수정주의 패러다임. 문화와 계급. 홍성민외편. 서울: 동문선
- 양종희. (2005). 문화예술사회학. 서울: 도서출판 그린
- _____. (1994).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문화분석: 문화적 지배논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33(1)
- 원용진. (2002). 대중매체와 대중문화, 강상현·채벽편, 「대중매체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한나래
- 윤시향외. (2003). 대중문화의 발달과 매체의 기능 전환 -대중문화와 매체, 문화민주화를 위한 매체의 "기능전환", 브레히트의 매체실험. 한국브레히트학회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 이강수. (1987). 「한국대중문화론」, 서울: 법문사
- 이기현. (1995). 부르디외 : 비판사회과학의 성찰성. 탈현대회사상의 과제.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서울: 새길
- 이기홍. (2005). 한국노인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한국노년학 25(3).
- 이상철. (2003). 문화자본과 국가발전. 동서언론 7
- 이성원. (2002). 중앙정부의 문화정책과 지방문화. 공무원특강 자료
- 장미혜. (2001). 문화자본과 소비양식의 차이. 한국사회학 35(3). 51-81
- _____. (2002a). 예술적 취향의 차이와 문화자본. 문화와 계급. 홍성민외편. 서울: 동문선
- _____. (2002b). 한국사회에서의 사회계급별 소비양식의 차이. 문화와 계급. 홍성민외편. 서울: 동문선
- 정연정·신승식. (2004). 괴산군의 문화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충북개발연구원. 충북연 2004-9
- 정향진. (2003). 수준별 수업과 문화자본으로서의 감정통제-미국 중학교의 사례. 교육학연구 41(1). 67-89
- 장미혜. (2001). 문화자본과 소비양식의 차이. 한국사회학 제35집 3호
- 조광익. (2006). 여가소비양식의 분석을 위한 문화자본 이론의 적용. 관광학연구 30(1)
- 조돈문. (2005). 한국사회의 계급과 문화. 한국사회학 39(2)
- 조 은. (2002). 문화자본과 계급재생산. 문화와 계급. 홍성민외편. 서울: 동문선
- 주은우. (2003). 대중문화와 민주주의 「한국정치연구」 제12집 제2호
- 최셋별. (2001). 상류계층 공고화에 있어서의 상류계층 여성과 문화자본: 한국의 서양고전음악 전공 여성 사례. 한국사회학 36(1).
- 홍성민. (2004). 피에르 부르디외와 한국사회. 서울: 살림
- _____. (2000). 문화와 아비투스. 서울: 나남출판
- 林國良. (1995). 「現代文化行政學」, 中國 上海: 學林出版社
- 中川 幾郎. (2000). 「分權時代の 自治體文化政策」, 東京: 勁草書房

- Aschaffenburg, K. & mAAS, I.(1997). Cultural and educational careers: the dynamics of social reprodu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4). 573-587
- Bourdieu, P.(1986). The form of capital: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John G.Richardson(eds.) New York: Greenwood Press. 241-258
- Bourdieu, P. (1984). *Distinction :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Richard Nice tra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arpenter, Evelyn (1999). *Democracy, the Arts and New Audience*. London: City University.
- De Graaf & Kraaykamp(2000). Parental Cultural Capital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Netherlands: A Refinement of the Cultural Capital Perspective. *Sociology of Education*. Vol.73 No.2
- DiMaggio, P.(1982). Cultural capital and school success: the impact of status cultural participation of the gardens of U.S. highschool stud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182-201
- DiMaggio, P. & Mohr, J.(1985). Cultural capital, educational attainment and martial sele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 1231-1261
- Evrard, Yves (1997) Democratizing Culture or Cultural Democracy ? *Journal of Arts Management, Law and Society*. Vol.27 No. 3. Fall
- Girard, Augustin & Marger, Brigitte (1987). The Ministry of Culture in Stewart, R.(ed.) *The Arts: Politics, Power and the Purse-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tructure of Arts Funding*. London: Arts Council of Great Britain
- Girard, A. (1983). Cultural industries: A handicap or a new opportunity for cultural development. in *Cultural Industries: A challenge for the future of culture*. UNESCO. Paris
- Holt, D.B. (1997). Distinction in America? Recovering Bourdieu's theory of tastes from its critics. *Poetics*. 25. 99-120
- Korac-Boisvert,N. & Kouzmin, A. (1995). IT development: methodology overload or crisis ?. *Science Communication : An Interdisciplinary Science Journal* 17(1)
- Langsted, John (1990). Double Strategies in a Modern Cultural Policy. *Journal of Arts Management, Law and Society*. Vol.19 No.4. Winter
- Lewis, Justin (2000). Designing a Cultural Policy in Gigi Bradford, Michael Gary & Glenn Wallach(eds.). *The Politics of Culture*. New York: The New Press
- Moore, W. S. (1976). Regulatory reform : highlights of a conference on government regulation. *Domestic Affairs studies*. 45
- Quinn, Ruth-Blandina (1997). Distance or Intimacy? The Arm's Length Principle. the British Government and the Arts Council of Great Britain.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4(1)
- Lewis, Justin (2000). Designing a Cultural Policy in Gigi Bradford, Michael Gary & Glenn Wallach(eds.).

The Politics of Culture. New York: The New Press

Schuster, J. (1994). Arguing for Government Support of the Arts: An American view. in Robison et al (eds.) *The Arts in the World Economy*. Hanover: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Scruton, Roger (1998). *An Intelligent Person's Guide to Modern Culture*. London: Gerald Duckworth & Co. Ltd

Trend, D. (2001). *Reading digital culture*. Oxford : Blackwell Publishers

Willaims Raymond (1958). Culture is ordinary in Gray Ann & McGuigan Jim (ed.) *Studying Culture*. London: Edward Arnold. originally published in N.McKenzie(ed.): *Convictions*(MacGibbon and Kee, 1993)

Willaims Raymond (1961). *The Long Revolution*. London: Cox & Wyman Ltd.